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점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음 1월 19일) 제20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군산 경제위기 극복 특별자금 1600억원

### 도, 조선업 협력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6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저리융자전환보증 1000억원 투입

전북도는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군산 지역 경제의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특별자금 등 1,6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소와 GM군산공장의 가동중단이 겹치면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련 협력업체들의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난 해소를 긴급 조치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GM 협력업체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용도가 양호한 업체(조선업 포함)를 대상으로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2년거치 2년상환, 이차보전 2.5%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GM협력업체 중 기존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거치기간 1년 연장을 통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 200억원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연계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GM 및 조선업 협력업체 210여개사에 업체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2년거치 2년상환, 이차보전 2%를 도에서 지원한다.

기업 존치를 위한 세금, 전기료 등 필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규모로, 업체당 5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도는 업체에서 요구해 온 보증한도(8억원)를 초과한 업체도 추가로 2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재원 45억원을 예비비로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자금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59억원을 투입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가 현 신용보증 기준상 8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업체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도는 또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600억원과 저리융자 전환보증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도 이차지원 장기대출 저리융자 600억원과 최저임금 인상 및 대·내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치분소득 감소로 인한 고금리 보증부 대출 이용 자영업자에 대한 저리융자 전환보증 지원 400억원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의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자금 투입을 통해 우선적으로 협력업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와 더불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및 저리융자 전환보증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위기지역 지정의 신속한 처리와 도 지원사업 발굴 및 중앙정부 반영,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5일 전주상공회의소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 및 제23대 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케이크를 자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전주상의, 효자동에서 새로운 출발 알렸다 | 신청사 준공·의회 출범식 열여 "전북경제 희망의 등불 역할 할 것"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40여년의 전통 시대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효자동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전주상공회의소는 5일 신청사 준공식 및 제23대 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기관단체장과 김광호 전임회장, 김택수 명예회장을 비롯한 제23대 임의원단,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36년 설립된 전주상의가 창립 83년의 역사속에 42년간의 전통시대를 마감하고 제23대 의원단과 함께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개막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되었다"고 말하고,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상공회의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선배 상공인들과 도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전라북도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전주상공회의소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전북경제에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상공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 준공과 함께 제23대 의회 출범이 전 북경제 회생에 큰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과 김승수 전주시장도 앞으로 전주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전주는 물론 전북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지면적 2,574.30㎡에 연면적 2만3,393.27㎡, 지하 4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건축된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국제교류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등의 기관이 입주해 윈스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민 기자

##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빛이 보인다'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3년세 일자리 109명 창출·지원기업 매출 8.8% 증가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원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신업인 농·생명 분야와 첨단 SW융합기술을 접목한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 총 36개 기업에 농생명 SW융합기술 R&D(연구개발)와 제품 상용화를 지원, 총 1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주시와 전북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농업실용화재단,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SW산업육성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19건의 개발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 매출이 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주)바로텍시너지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특허기술인 '농업용 트랙터의 모의 운전 교육장소'를 이전 받아 제품 상용화에 성공,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등에 납품하고 4억 3000만원의 매출성적을 올렸다.

또한 '스마트 버섯재배 시스템' R&D를 통해 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한 버섯의 판로 개척에 성공한 (주)서우엔에스는 에너지 관리 및 농업 ICT

융합 분야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14억 4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전주시를 포함한 사업 참여기관들은 4차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올해는 농생명 분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될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과제 공모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 또는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 홈페이지(www.jcluste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규민 기자

2면	-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면	- 민평당-정의당 공동교섭 구성 논의
5면	- 교육활동 침해 '강력 대응'	14면	- '소프트랙' 김이랑 모교 방문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